

2013년 5월 11일 한외사연구회 월례회

호리 도시카즈,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1993/2012)

6장. 동방 국가들 입장에서의 중화적 세계(1) - 4세기 이전

1. 왜국의 조공과 금 도장: 『한서』 권28하, 지리지(p.162)-->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하자 왜인이 조공.

2. 히미코의 책봉: 『위지』동이전 왜인 조-->238년 6월, 야마타이국 여왕 히미코의 사자가 대방군에 이르러 황제에게 조헌하길 청했다. 히미코를 '친위왜왕'에 임명. 책봉할 때 내리는 책서가 아니라 제서를 내려 임명. 변이(蕃夷)에 대해서는 격을 낮추어 임명. 금인 또한 임시로 주었다는 점에서 신뢰관계 미약.

3. 고구려와 모용연-새로운 책봉형태

서진왕조 혼란 & 오호 봉기 시작되는 4세기 초엽, 고구려가 강성해져 한반도 북부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함락. 4세기 중반~후반, 백제, 신라 건국으로 고구려와 함께 삼국 정립/ 왜국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열도 통일 (중국 세력의 쇠약으로 중국측 사료 결핍, '의문/공백의 세기')

『양서』 제이전(pp.180-181): 광개토왕이 후연 황제로부터 책봉 받았다는 기록. 그러나 광개토왕은 스스로 연호를 정했으므로 모순. 후연측 일방행위로 고구려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시대 책봉의 특징

- (1) 왕, 공, 군공 등 작위 뿐 아니라 중국 내 지방관의 관직 부여 (본래 그 땅이 중국 영토였음을 표명--> 당대에 와서 기미주 제도로 발전) (피책봉국 측에서는 일정 영역 지배 정당화 위해 중국 권위를 이용)
- (2) 군사적 색채 강함. (중국 내 지방관은 무관 겸임)

4. 고구려 안의 한인 사회

전연의 압박으로 고구려 평양으로 천도. 그러나 오랫동안 동진의 연호를 공식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연에 대해 면종복배. (안악 3호묘, 덕흥리 고분) 광개토왕 시대에는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 사용

5. 백제와 신라의 발흥과 국제관계

(1) 신라

『자치통감』권104/ 『태평어람』권781에 인용된 『진서』: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전진에 조공했다

는 기록.

(2) 백제

『진서』간문제본기: 같은 시기(372, 384, 386년) 백제는 남방의 동진에 입공. 371년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 중국 왕조의 권위를 빌려 독립을 확실시하기 위함. 동진은 사자를 파견, 장군과 태수 직을 수여. 386년 세자를 '백제왕'으로 삼았다는 최초의 책봉 기록.

백제왕이 왜왕에게 주었다는 칠지도의 명문: 동진의 연호 사용. 백제가 372년 전에 동진의 종주권을 인정했다는 증거, 왜와 연락했다는 증거. 동진에 대해서는 신속(臣屬)했고, 왜에 대해서는 신속하지 않았다는 증거. 고구려에 승리 이후 동진 및 왜와 제휴할 필요성.

--> 한반도에서의 삼국 정립은 서방의 중국 및 동방의 왜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

(3)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396년,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복속. 그러나 백제는 399/397(삼국사기) 고구려를 배반하고 왜와 통교. 신라는 고구려와 통교하고 400년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 왜를 격파.

--> 백제+왜 vs. 신라+고구려라는 5세기 전반 국제적 배치 형성

7장. 동방 국가들 입장에서의 중화적 세계(II)-5,6세기

1. 고구려, 백제, 왜의 강남 통교

(1) 고구려

고구려는 4세기 전반 동진과 통교, 잠시 동진의 연호를 사용. 그러나 그 후 국경을 접한 전연, 전진, 후연 등과의 교섭에 치중하여 책봉 받고, 후연이 멸망한 뒤에는 남연과도 통교. 남연 멸망 뒤 장수왕이 즉위한 413년 고구려는 다시 동진의 책봉을 받음. (『진서』안제본기, 『송서』이만전 고구려국 조)

- 고구려는 전연에게 받은 칭호를 동진으로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책봉 요구. 장수왕 즉위 계기로 단절되었던 화북왕조와의 결연 희망.

- 고구려는 위세 과시하기 위해 사로잡은 왜인 데리고 가 왜국 사신이라 칭했으리라 추측됨. 고구려왕은 책봉 받지만 왜국에 대해서는 무대응.

(2) 백제

고구려 입공 소식 듣고 사신 동진에 파견, 백제왕으로 책봉. 중국 왕조 측은 고구려와 백제의 균형을 고려.

동진 멸망 뒤 송 무제는 고구려왕과 백제왕을 모두 대장군으로 승진. 건국 초의 관례.

(3) 왜

421년 남조에 최초 조공. (『송서』이만전, 『남사』송본기). 서진 초 266년을 끝으로 150년만에 처음. 부여된 관작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송이 멸망하기 전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장군에

임명.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매우 낮게 여겨졌음. 왜 5왕이 남북조로부터 받은 관명표(p.201), 고구려왕 및 백제왕 관명표(p.223)와 비교해 볼 것.

2. 책봉의 효용(1)-도독6국제군사의 의의

당시 국제사회 통용되는 대의명분 가진 존재는 중국 왕조. 따라서 각국은 적극적으로 책봉체제 속으로 들어가 이를 이용하려 함.

- 왜왕 진은 송에 '도독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6국제군사'라는 관호를 송에 요구. 다투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보증받으려는 의도. 그 뒤에도 집요하게 요구, 그러나 송 왕조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이적의 종속을 통해 군주의 권위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화사상 채택.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한반도의 백제와 임나 등을 일본의 종속국으로 기록

-울령에서는 당을 '인국', 신라와 발해를 '번국', 일본열도 안의 에미시, 하야토 등은 '이적'으로 차별화

3. 책봉의 효용(2)-중국 관위의 역할

『송서』이만전 기록에 따르면, 왜왕이 자신의 신하 이름을 말하며 장군 호와 관명까지 지정하여 송 왕조에 임명 요청. 왜왕과 그 부하의 상하관계를 중국 왕조 관위 통해 명확히 하려는 심산.

-왜국왕이 받은 관위는 3품, 신하가 받은 장군도 같은 3품 중 하위서열. 왜국 왕권은 중국적 전제군주와 거리가 먼 왕과 주위 왕족 및 신분이 유사한 귀족들이 만든 정권.

『송서』이만전 기록에는 백제왕이 신하임명 후 인가 요청. 마찬가지로 중국 관위들이 지정되어 있음. 『남제서』동남이전에도 비슷한 기록들, 고구려도 마찬가지.

- 중국으로부터 받은 관위와 관직은 실질적 효력이 없는 명예직. 백제가 중국 왕조에 임명 요청한 것은 왕족, 중앙귀족, 궁정 관료, 씨족 및 부족제를 관료제적 신분제도로 재편하기 위해 중국 왕조의 관위를 빌려옴.

중국에서 관위와 관계를 규율하는 관품은 울령에 규정. 중국 주변국에서는 국가기구가 성장하면서 중국 울령 수입, 섭취가 과제.

- 일본의 경우 울령 법전 그대로 이식

- 고구려 소수림왕 3년(373)의 울령 반포(『삼국사기』)는 진(晉) 울령 일부인 관위제, 의관제

- 신라는 법흥왕 7년(520) 울령 시행. 이 때 울령은 의관제(衣冠制)로 정치적 집단의 신분적 평성.

- 중국 북방 유목민 사회에서는 울령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음: 『수서』돌궐전 따르면, 양제는 돌궐이 복식법을 화하와 똑같이 시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거절. 화이 분별 유지.

- 당대 위구르인 수장 칭호 '투툽' 또한 당의 관명인 '도독'에서 왔으리라 추정

4. 한반도 삼국과 남북조

(1) 남조

a. 제

왜왕은 송 멸망 직전인 487년에야 안동장군(3품)에서 안동'대'장군(2품)으로 승격.
다음 왕조인 제는 건국 초 곧바로 왜왕의 지위를 진동대장군으로 올려줌.

『남제서』동남이전에서 '보국장군.본국왕' 수여받은 가라국왕은 가야로 추정.

제의 고구려, 백제 책봉은 건국 2년째인 480년에 이루어짐. 고구려왕은 송대인 463년 정동대장군에서 거기대장군으로 승격, 480년에 더 높은 '표기대장군'으로 승격.
백제왕은 송대와 마찬가지로 진동대장군에 임명.

b. 양

508년 고구려 조공하여 '무동대장군' 됨.